

## 한국 시장에서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세회피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조교수

조진형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박사과정

김상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  
박사과정

### An Empirical Study for the Effect of CSR Performance on Tax Avoidance: The Case Of South Korea

Jeong Hwan Lee<sup>a</sup>, Jin-Hyung Cho<sup>b</sup>, Sanghee Kim<sup>c</sup>

<sup>a</sup> College of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 College of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South Korea

<sup>c</sup>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1, Revised 18 March 2021, Accepted 25 March 2021*

#### Abstract

**Purpose**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 engagement of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in corporations affect the tendency of tax-avoidance by using the sample of Korean companies.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Chaebol-affiliated firms, which are a special type of Korean conglomerat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is based on a sample of 5,496 firm-year observation data from 2011 to 2017 by using the ESG ratings from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KCGS), a ESG rating agency in Korea. For our analysis, the firms were separated into 1,547 *Chaebol*-affiliated firms and other 3,949 firms. All financial and firm data were extracted from Fn-guide, which provides financial information for Korean listed firms.

**Findings** - We find that CSR is generally positively related to the effective tax rate, which indicates a lower level of tax avoidance for more socially responsible firms. In particular, a positive relationship of social score with GAAP ETR was observ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e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robust to the group of chaebol and non-chaebol affiliates unlike extant literature

**Keywords:** Chaebol, CSR, ESG, GAAP ETR

**JEL Classifications:** G30, H26

## I. 서론

1996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기업윤리현장 제정부터 2006년 6월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 도입에 이르기까지<sup>3)</sup>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세계적인

<sup>a</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jeonglee@hanyang.ac.kr

<sup>b</sup> First Author, E-mail: enish27@hanmail.net

<sup>c</sup> Co-Author, E-mail: sangheekim@hdcpa.co.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많은 기업이 CSR(사회적 책무)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 도입하는 분위기이지만, 기업이 CSR 활동과 투명한 경영 활동을 함께 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다.

CSR 활동이 보편적인 기업 경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면, '기업 가치 극대화'는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한 방편으로 조세 전략을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조세회피는 기업이 법이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이 조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세법에서 조세회피는 우회행위 등을 통해 통상의 거래행위를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정교 외, 2015) 따라서 불법으로 분류된 탈세와 달리, 조세회피는 절세 전략과 탈세 사이에 존재하며, 학계에서 중요한 주제로 연구됐다.

국가별로 기업 특성에 따라 CSR 활동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은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국내 기업로 한정해 살펴본다면 특정 기업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조세회피 분석에 있어 중요성이 클 것이다.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경영자는 자신의 사익을 우선시킬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배주주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조세회피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대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위해 경영인이 최적의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 이는 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일 경우 소유권보다의결권을 더욱 중시함으로써 지배주주의 부를 확대하는 반면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시 말해, 경영자는 주주를 위한 행동보다 재벌기업집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벌기업집단 전체의 최적 조세 부담을 달성하기 위해 소속 기업 간 내부거래와 이전가격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CSR 활동이 조세회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조세회피 측정변수로 유효세율을 도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처럼 재벌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조세회피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영자에 대한 통제 장치가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CSR 활동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점수로 측정된 이후 이것이 전체 기업, 그리고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CSR 성과가 높을수록 회계유효세율(GAAP ETR)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재벌집단 및 비재벌기업집단의 구분이 사회공헌활동과 조세회피경향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각 CSR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기업과 비재벌기업집단 기업의 사회(S) 항목이 회계유효세율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법인세 납부에 대한 책무가 더욱 높다는 것을 함의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째, 한국 기업을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기업의 CSR 성과와 조세회피 정도를 비교하여 한국 기업의 CSR 성과와 조세회피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나눠 회귀분석함으로써 각 변수별 성과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 등 집단별로 측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조세 회피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다방면으로 짚어봤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III 절에는 표본과 연구방법을 설명하며, IV 절은 실증분석 결과와 그 함의를 논의한다. 끝으로 V 절은 결론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 검증

### 1. 기업 CSR과 조세회피

기업의 조세회피 간의 국내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행위는 절세와 탈세로 나뉜다.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시켰다면 절세로 정의되며, 위법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했다면 탈세로 정의된다. 반면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기업(납세자)에 유리하도록 세법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 회피는 기업의 투자 경영 활동과 관련성이 높는데, 실제로 기업 차원에서 조세 회피는 효율적인 비용 절감 수단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특히 재무 상황이 어려운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액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회사 운영에 가장 피해가 덜한 비용 절감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근봉, 2010) 또는 기업 경영자 가운데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신 성향의 경영자일수록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장승주 외, 2017)

조세회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조세회피로 하여금 부채가 감소되고, 현금유출이 줄어든 결과 기업 가치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Graham et al., 2006) 한편으로 조세회피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추후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낮아질 때 발생하는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기업 경영인과 자금 공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다. 정보 비대칭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역선택의 경우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 자원 조달이 어려워지며, 그 결과 투자 자금 공급자들은 투자안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강정연(2019)은 조세회피가 기업 투명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기업 투명성과 재무 보고의 질이 감소되는 반면 정보 비대칭은 증가하는 점을 보고하였다.

또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회계품질이 낮아진다면 경영자는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규안 외, 2020) Sengupta(1998)는 기업의 공시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자와 채권자가 투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산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궁극적으로 선행연구는 조세회피가 기업 평판 추락, 경영권 상실 등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Katz et al.(2013)는 조세회피와 미래 이익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조세회피를 적극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미래 경영 성과가 낮았는데, 이 낮은 마진율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자산의 활용과 영업부채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조세회피는 경영층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Chen et al.(2019)은 기업의 조세회피가 경영권 상실, 정치적 압력, 소비자 불매 운동 등의 악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였으며, 유현수 외(2017)는 조세회피 행위가 경영자의 대리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감시, 감독을 약화시킨 결과, 경영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조세회피의 부정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라면 기업의 평판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회피가 음(-)의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oi et al.(2013)은 과도한 조세회피가 무책임한 CSR 활동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거나, 최소한 음(-)의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Watson(2011)은 조세회피 정도를 세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 등을 이용하여 CSR 점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CSR 점수가 높은 그룹은 다른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유독 CSR 점수가 낮은 그룹은 유의하게 높은 조세회피 성향이 보고되었다.

김정교 외(2015)는 조세회피 대응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재량발생액(BTD)을 활용한 결과 기업의 CSR 활동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준령 외(2014)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조세회피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감소시킨다고 제시했다. 이상의 국내 연구 분석 기간은 단 수년치에 불과하여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의 CSR 활동과 조세회피의 상관성을 단정짓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2. 재벌기업집단 소속 여부의 조세회피 영향

김진욱 외(2009)에 따르면 국내 재벌기업집단에서 CSR에 대한 인식 확산은 1980년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적 확장을 거듭하던 일부 재벌기업의 도덕성, 지도력, 기술혁신 등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로 윤리·의식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윤리강령을 채택함으로써 CSR의 필요성을 수용하였으며, 이후 삼성·현대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늘기 시작하였다. 기업집단의 경영 의식을 다룬 선행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McNeil et al.(2004)은 지배주주는 경영자의 기업집단 내의 이동에 개입함으로써 경영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결과 그 경영자가 재량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 CSR 연구는 재벌기업집단의 역할에 대해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Yoon et al.(2018) 및 Yoon et al.(2019) 등이 있다. 두 연구는 각각 CSR의 가치 관련성이나 회계 정보의 공정성 측면에서 비재벌 기업집단에서 CSR과 관련성이 보다 큼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벌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언론 등에 의해 보다 큰 외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수정 등(2012)은 재벌기업에서 경영자를 갖게 교체하는데, 이것이 계열기업 경영자에 통제 장치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재벌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조세회피 경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유현수 외(2017)가 있다. 해당 연구는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이 조세회피 정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계투명성이 낮을수록 조세 회피에 끼치는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 완화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울러 해당 연구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면 경영자가 사익을 목적으로 한 조세 정책을 억제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이 낮은 경영환경에서는 경영자가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 3. 사회공헌활동과 조세회피 경향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CSR 활동과 조세회피를 국내 기업 환경에 비추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한국 기업의 CSR 활동이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과세당국으로부터 기업의 조세회피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어 기업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을 크게 우려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 기업 평판 훼손과 심하게는 경영권 상실을 감내할 정도까지 조세회피를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지만, 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에 따른 감시와 통제에 따라 CSR 활동에 따른 조세회피 효과가 날 것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비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상이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III. 표본 및 연구방법

###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의 CSR 성과의 대용치(Proxy)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공시하는 ESG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CSR과 유효세율로 측정된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에프앤가이드에 등록된 상장기업이다. 본 연구는 전체 상장기업 뿐 아니라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 기업을 구분하여 각 조세회피 대용치를 분석하였다.

표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은 2011년부터 2017년으로, 이 기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점수가 명시된 상장기업으로 각종 종속 변수와 통제 변수로 사용될 데이터는 에프앤가이드에서 입수하였다. 또한 이상치(Outlier)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하위 1%를 벗어나는 종속 변수(유효세율)와 각 통제 변수의 경우 상·하위 1% 값으로 조정(Winsorize)하였다. 또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데이터를 결측 처리함으로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에 정리한 것과 같이 분석 표본은 해당 기간 동안 총 5,496개이며 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 소속 기업 표본은 각

1,547개, 3,949개이다.

**Table 1.** Research Sample

Sample Criteria	Number of Sample
All firms	5,496
Chaebol-affiliated firms	1,547
Non-Chaebol-affiliated firms	3,949

## 2. 변수정의 및 연구방법

### 1) 변수의 측정

#### (1) 조세회피의 측정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 회피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유효세율(Tax Effective rate)을 설정하고자 한다. 조세회피에 대하여 실증 연구는 다양하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측정치 역시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학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유효세율(GAAP ETR)을 사용하였다. 회계유효세율은 세전이익 단위당 조세부담액 비율로 연도별로 측정하는데 분자가 회계상 금액으로 분자, 혹은 분모가 음(-)일 경우 정의가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또 법인세비용(분자)은 당기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연법인세비용은 미래의 법인세 비용에 해당되어 이연법인세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회계유효세율은 각 상장기업의 세무신고 자료를 활용할 수 없으며, 재무제표에 명시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되었다는 특징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유효세율은 기업 공시 등으로부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yrenng, 2008) 이 유효세율이 낮다는 것은 이는 세전 이익 대비 법인세 지출이 회계상, 현금흐름이 낮다는 뜻으로 기업이 조세 회피에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계유효세율은 이 자료의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었다. 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는 회계 유효세율에 100을 곱함으로써 계산상 편의를 높였다.

$$\text{회계유효세율(GAAP ETR)} = \text{계속사전법인세비용} / \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 기업의 CSR 활동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제공하는 ESG 평가지수를 기업의 CSR 성과의 대용치로 활용하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매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지수를 공시한다. 이 평가지수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항목별로 나뉘며, 본 연구는 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와 개별 점수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각 점수는 100을 나눔으로써 계산상 편의를 높였다.

#### (3) 기업 변수의 측정

기존 선행연구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CSR 활동과 재무 요인의 관련성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는 Fariz Huseynov et al.(2012)과 Fry et al.(1982), 장승욱 외(2013) 등이 있다. Fariz Huseynov et al.(2012)는 현금유효세율과 회계유효세율을 기업의 CSR 활동과 회귀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LogTA), 부채비율(Leverage), 배당 여부(DivDummy), 주가순자산비율(PB), 총자산수익률(ROA), 해외 판매 비중(ForeignSales) 등 다양한 기업, 금융 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Fry et al.(1982)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다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당 기업의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 지출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장승욱 외(2013)는 2008~2011년의 4년에 걸쳐 ESG 정보를 활용하여 재무성과의 대응치로 주식수익률, 영업성과, 토빈큐(시가총액/순자산가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ESG 등급이 우수한 AA 기업군이 그보다 등급이 낮은 E 기업군에 비교하여 주식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영업성과와 토빈큐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세율과 재무 요인의 관련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인 김정호 외(2013)는 자본집약도, ROA, 수출비율 등이 장기적인 조세회피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기업규모, 부채비율, 감사 보수, 감사인 규모 등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김정교 외(2015)는 CSR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분석 시 통제 변수로서의 기업규모와 부채비율은 각 양(+), 음(-)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외로 유상열(2010)은 조세회피 대응치로 총 4가지의 재량발생액(BTD)을 활용한 결과, 수익성, 설비자산, 발생액 등이 양(+의 값을 가졌으며, 성장성, 무형자산, 기업규모, 부채비율, 감사인 유형, 최대주주 지분율이 4가지 BTD에 끼치는 영향의 방향성, 유의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조은영 외(2017)는 K-IFRS 도입 전후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율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치지만, 외국인지분율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활용된 여러 금융·기업 변수와 자료 입수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기업 규모(LogTA), 부채비율(Leverage), 배당 여부(DivDummy), 주가순자산비율(PB), 주가순자산비율(PB), 총자산수익률(ROA), 자본지출(CapEx), 광고비(Advertising Expense) 등의 재무적 요소를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는 각 기업의 총자산에 로그값을 취했으며, 부채비율은 단기·장기부채의 합을 총자산으로 나누었다. 배당 여부는 분석 대상 기업에 배당 기록이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하였다. 주가순자산비율은 에프엔가이드에 등록된 PBR(PB ratio)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총자산수익률은 당기순이익에서 총자산을 나누었으며, 자본지출은 유형자산, 유형자산처분(취득), 무형자산, 무형자산감소 등을 합산한 뒤 이를 총자산으로 나누었다. 끝으로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에서 총자산을 나누었다.

각 재무 요소를 살펴보면, 수익성(ROA)이 좋은 기업은 조세에 따른 현금 유출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 성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채비율(Leverage)이 높은 기업은 이자 비용을 통한 감세 효과로 비부채 감세수단인 조세회피에 대해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업 규모(LogTA)는 유효세율 간의 관계에 있어 정치적 영향 이론, 혹은 정치적 비용 이론에 따라 각 다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정치적 비용 이론에 따르면 대기업은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어 높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한다. 규모가 큰 기업은 높은 가시성의 결과로 많은 규제와 부의 이전을 요구받게 되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며 그 결과 조세회피 정도가 클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영향 이론은 대기업은 조세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조세 혜택을 가져옴에 따라 작은 기업에 비해 더 낮은 유효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치적 영향 이론은 규모가 큰 기업이 더 큰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낮은 세율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정치적 비용 이론은 반대로 예상하게 된다. (노현섭 외, 1999)

###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가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대체적으로 조세회피가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CSR에 적극적이라면 기업은 평판 유지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 투명성에 신경쓰므로써 조세회피 성향을 낮출 것으로 추측된다. Chen et al.(2019), 유현수 외(2017)를 비롯하여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듯이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시 체계를 약화시켜 경영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 불매 운동, 정치적 압력, 심지어는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애당초 CSR 활동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다. 따라서 기업의 CSR 활동은 조세회피와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유효세율이 높을수록 보다 작은 조세회피 경향을 보일 것임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H1** ESG 성과가 높은 국내 상장기업은 회계유효세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 2) 기업집단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 차이에 관한 연구가설

본 연구는 재벌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포털을 참고하였다.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재벌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을 차용하여, 재벌기업집단 기업이 지배주주에 따른 감시와 통제에 따르거나 충실할수록 CSR 성과와 조세회피가 양(+)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복잡할 경우 CSR 성과와 조세회피가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등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반면 비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상이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의 CSR 성과에 따른 조세회피 정도는 서로 차이가 날 것이다.

본 연구는 회계유효세율에 대한 기업 CSR 활동의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귀분석하였다. 먼저 CSR 활동 대응치로 ESG 합산 점수(ESG SUM)를 활용하여 공식(1)과 같이 회귀분석하였으며, 이어 같은 방식으로 각 ESG 점수(ESG ENV, ENV SOC, ESG GOV)를 구분하여 공식 (2)와 같이 회귀분석 하였다. 시간과 개별 기업에 대한 고정 효과를 모두 포함하였다.

$$\begin{aligned} GAAPETR = & \beta_0 + \beta_1 \text{LogTA} + \beta_2 \text{Leverage} + \beta_3 \text{Div Dummy} + \\ & \beta_4 \text{PB} + \beta_5 \text{ROA} + \beta_6 \text{Capex} + \beta_7 \text{Advertising Expense} + \beta_8 \text{ESG SUM} \\ & + \gamma' \text{time dummy} + \delta' \text{firm dummy} + \mu_{it} \end{aligned} \quad (1)$$

$$\begin{aligned} GAAPETR = & \beta_0 + \beta_1 \text{LogTA} + \beta_2 \text{Leverage} + \beta_3 \text{Div Dummy} + \\ & \beta_4 \text{PB} + \beta_5 \text{ROA} + \beta_6 \text{Capex} + \beta_7 \text{Advertising Expense} + \beta_8 \text{ESG ENV} \\ & + \beta_9 \text{ESG SOC} + \beta_{10} \text{ESG GOV} + \gamma' \text{time dummy} + \delta' \text{firm dummy} + \mu_{it} \end{aligned} \quad (2)$$

## IV. 실증분석 결과

###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기업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먼저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LogTA’의 평균과 중간값은 각각 20.252와 19.942의 값을 보였으며, 부채비율인 ‘Leverage’의 평균과 중간값은 0.192, 0.178로 관찰되었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쓴 것을 의미한다. 배당 여부를 나타내는 ‘DivDummy’의 평균과 중간값은 0.740, 1로, 전체 상장기업의 70% 이상이 배당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는지 알려주는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의 평균과 중간값은 1.465, 0.93이었다. 총자산수익률을 뜻하는 ‘ROA’는 기업이 그들의 총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평균과 중간값은 각 0.024, 0.026이었다. 또 기업이 고정자산을 구매하거나, 유효수명이 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기존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돈을 쓸 때 발생하는 설비투자 비용을 나타내는 자본 지출, 즉 ‘Capex’의 평균과 중간값은 0.015, 0.005이었다. 끝으로 광고 비용(‘Advertising Expense’)의 평균과 중위수는 0.007, 0.001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평균	표준 편차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LogTA	5,539	20.252	1.705	19.069	19.942	21.070
Leverage	5,539	0.192	0.153	0.050	0.178	0.299
DivDummy	5,539	0.740	0.439	0	1	1
PB	5,517	1.465	1.636	0.57	0.93	1.64
ROA	5,539	0.024	0.071	0.003	0.026	0.060
Capex	5,532	0.015	0.066	-0.007	0.005	0.034
Advertising Expense	5,539	0.007	0.015	0.000	0.001	0.005
Environment	5,539	102.696	62.844	45	105	143
Social	5,539	89.092	50.559	56	76	106
Governance	5,519	91.830	30.037	71	91	107
ESG	5,519	283.31	112.973	205.6	265.8	334

기업의 CSR 성과를 측정한 ESG 점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E)의 평균과 중간값은 102.696, 105, 사회(S)는 89.092, 76, 지배구조(G)는 91.830, 91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합계 점수의 평균 값과 중간값은 283.31, 265.8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의 통제 변수 간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LogTA)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상관성이 0.60, 0.44, 0.64, 0.2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여부(DivDummy)는 기업 규모(LogTA)와 상관성이 0.30이었으며 총자산수익률(ROA)과는 0.32을 기록했다. 부채 비율(Leverage)과 총자산수익률(ROA)은 -0.34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LogTA	Leverage	Div Dummy	PB	ROA	Capex
LogTA	1.00					
Leverage	0.03	1.00				
Div Dummy	0.30	-0.18	1.00			
PB	-0.11	-0.07	-0.14	1.00		
ROA	0.09	-0.34	0.32	0.22	1.00	
Capex	0.02	0.03	0.11	0.13	0.19	1.00
Advertising Expense	0.03	-0.14	0.09	0.19	0.14	0.01
Environment	0.44	0.14	0.12	-0.07	-0.02	-0.01
Social	0.64	0.00	0.19	0.02	0.07	0.02
Governance	0.26	-0.08	0.10	-0.01	0.08	0.03
ESG	0.60	0.06	0.18	-0.03	0.04	0.01

Variables	Advertising Expense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LogTA					
Leverage					
DivDummy					
PB					
ROA					
Capex					

Advertising Expense	1.00				
Environment	-0.08	1.00			
Social	0.13	0.62	1.00		
Governance	0.04	0.13	0.31	1.00	
ESG	0.02	0.87	0.87	0.48	1.00

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는의 가설1에서는 CSR 활동과 회계유효세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2에서는 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비재벌기업집단 기업의 CSR과 조세 회피와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CSR 활동과 조세회피 정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 이후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비재벌기업집단 기업으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설 1은 CSR 활동이 회계유효세율간의 양(+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가설 2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과 재벌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양방향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관심변수인 회계유효세율(GAAP ETR)의 계수값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1)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석

국내 상장기업의 CSR 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전체 기업, 비기업집단 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회계유효세율을 공식(1)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합과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Table 4, Table 5, Table 6에 반영하였다.

Table 4. All Firms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tandard Error	t Value	Significance	
Firm factor	LogTA	0.069	0.024	2.91	***	0.000
	Leverage	-0.153	0.084	-1.82	*	0.068
	DivDummy	0.056	0.021	2.62	***	0.009
	PB	-0.007	0.021	-1.21		0.226
	ROA	0.084	0.117	0.72		0.474
	Capex	-0.132	0.085	-1.55		0.121
	Advertising Expense	0.344	1.224	0.28		0.779
ESG	ESG SUM	0.030	0.012	2.56	***	0.010

Notes: 1. Dependent Variable: GAAP ETR  
 2. Model Summary: R<sup>2</sup>=.220, Modified R<sup>2</sup>=.055, F-Value=1.33, Significance=.000.  
 3. p: \*\*\*<0.01, \*\*<0.05 and \*<0.10.

Sour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에프엔가이드.

Table 4는 전체 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 시 ESG로 측정된 기업의 CSR 성과는 회계유효세율과 양(+의) 관련성을 갖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측정한 CSR 합산 점수(ESG SUM)를 살펴봤을 경우 회계유효세율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낮은 조세회피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조세회피를 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사회공헌을 활발히 하는 기업들은 조세 회피를 보다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Non-Chaebol-Affiliated Firms**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 $\beta$ )	Standard Error	t Value	Significance	
Firm factor	LogTA	0.089	0.033	2.72	***	0.006
	Leverage	-0.781	0.099	-0.79		0.431
	DivDummy	0.048	0.025	1.90	*	0.057
	PB	-0.004	0.007	-0.56		0.575
	ROA	0.047	0.136	0.35		0.730
	Capex	-0.192	0.101	-1.90	*	0.058
	Advertising Expense	0.714	1.338	0.53		0.593
ESG	ESG SUM	0.029	0.016	1.78	*	0.075

Notes: 1. Dependent Variable: GAAP ETR

2. Model Summary:  $R^2=0.246$ , Modified  $R^2=0.064$ , F-Value=1.35, Significance=0.000

3. p: \*\*\*<0.01, \*\*<0.05 and \*<0.10.

Sour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에프엔가이드.

Table 5 와 Table 6에서 재벌기업집단 소속 여부로 살펴보면 회계유효세율과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비기업집단 기업의 CSR 합산 점수(ESG SUM)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수의 크기 차원에서역시 0.030과 0.029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Table 6. Chaebol-affiliated Firms**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 $\beta$ )	Standard Error	t Value	Significance	
Firm factor	LogTA	0.070	0.040	1.73	*	0.084
	Leverage	-0.249	0.168	-1.48		0.138
	DivDummy	0.058	0.042	1.39		0.164
	PB	-0.013	0.012	-1.06		0.290
	ROA	0.313	0.256	1.22		0.221
	Capex	-0.012	0.166	-0.07		0.943
	Advertising Expense	-1.300	3.209	-0.41		0.685
ESG	ESG SUM	0.029	0.018	1.65	*	0.099

Notes: 1. Dependent Variable: GAAP ETR

2. Model Summary:  $R^2=0.219$ , Modified  $R^2=0.044$ , F-Value=1.25, Significance=0.007

3. p: \*\*\*<0.01, \*\*<0.05 and \*<0.10.

Sour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에프엔가이드.

이는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상반되는 것이다. 사회공헌활동과 조세회피 성향에 있어서는 기업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연구인 Yoon et al.(2018) 및 Yoon et al.(2019)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조세회피 성향 차원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언론의 감시정도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통제 변수 결과를 살펴보면 GAAP ETR과 기업 규모(LogTA)가 기업의 상태에 상관없이 대체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전체 기업과 비재벌기업집단 기업의 GAAP ETR과 배당 여부(DivDummy) 역시 양(+)의 관련성이 있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보다 엄격한 회계감사 등으로 인해 낮은 조세회피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개별 점수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공식(2)에 근거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각 항목을 구분하여 회계유효세율(GAAP ETR)에 회귀분석하였다. 이는 각 항목이 회계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다. 그 결과는 아래 Table 7, Table 8, Table 9에 반영되었다.

Table 7. All Firms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tandard Error	t Value	Significance
Firm factor	LogTA	0.069	0.024	2.89 ***	0.004
	Leverage	-0.152	0.084	-1.81 *	0.071
	DivDummy	0.056	0.021	2.62 ***	0.009
	PB	-0.007	0.006	-1.22	0.222
	ROA	0.086	0.117	0.73	0.465
	Capex	-0.134	0.085	-1.57	0.117
	Advertising Expense	0.345	1.224	0.28	0.778
ESG	Environment	0.021	0.021	0.99	0.321
	Social	0.044	0.025	1.77 *	0.077
	Governance	0.027	0.024	1.16	0.247

Notes: 1. Dependent Variable: GAAP ETR  
 2. Model Summary: R<sup>2</sup>=.220, Modified R<sup>2</sup>=.054, F-Value=1.33, Significance=.000  
 3. p: \*\*\*<0.01, \*\*<0.05 and \*<0.10.  
 Sour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에프엔가이드.

Table 8. Non-Chaebol-affiliated Firms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β)	Standard Error	t Value	Significance
Firm factor	LogTA	0.088	0.033	2.68 ***	0.007
	Leverage	-0.079	0.099	-0.80	0.424
	DivDummy	0.049	0.025	1.92 *	0.055
	PB	-0.004	0.007	-0.58	0.564
	ROA	0.474	0.136	0.35	0.717
	Capex	-0.191	0.101	-1.89 *	0.059
	Advertising Expense	0.698	1.338	0.52	0.602
ESG	Environment	0.023	0.027	0.87	0.385
	Social	0.054	0.038	1.40	0.161
	Governance	0.018	0.031	0.60	0.552

Notes: 1. Dependent Variable: GAAP ETR  
 2. Model Summary: R<sup>2</sup>=.246, Modified R<sup>2</sup>=.064, F-Value=1.35, Significance=.000  
 3. p: \*\*\*<0.01, \*\*<0.05 and \*<0.10.  
 Sour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에프엔가이드.

전체 표본에 대해 회계유효세율(GAAP ETR)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 점수에서 가장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에 순응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업의 환경이나 지배구조 관련 활동에 비해 직접적인 사회 관련 활동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ESG 점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 역시 전반적으로 회계유효세율과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항목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각 ESG 항목이 오르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전반적인 사회공헌활동 자체도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와 사회공헌활동과 조세회피 성향 간의 음의 관계를 강건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9.** Chaebol-affiliated Firms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 $\beta$ )	Standard Error	t Value	Significance
Firm factor	LogTA	0.068	0.041	1.67 *	0.096
	Leverage	-0.243	0.169	-1.44	0.150
	DivDummy	0.058	0.042	1.39	0.164
	PB	-0.130	0.012	-1.08	0.279
	ROA	0.317	0.256	1.24	0.215
	Capex	-0.012	0.167	-0.07	0.944
ESG	Advertising Expense	-1.271	3.211	-0.40	0.692
	Environment	0.013	0.037	0.35	0.726
	Social	0.032	0.036	0.89	0.372
	Governance	0.052	0.040	1.30	0.193

Notes: 1. Dependent Variable: GAAP ETR

2. Model Summary:  $R^2=0.219$ , Modified  $R^2=0.042$ , F-Value=1.24, Significance=0.008

3. p: \*\*\*<0.01, \*\*<0.05 and \*<0.10.

Sour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에프엔가이드.

한편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 기업 간의 비교 분석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줄어드는 영향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의 차이에 주목하는 가설 2에 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표본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모두 회계유효세율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여전히 가설 1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재벌기업집단의 경우 사회(S) 성과에 따른 GAAP ETR 개선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벌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G) 성과에 따른 GAAP ETR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상장기업과 비재벌기업집단 기업의 경우 사회(S) 성과 개선에, 기업집단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G) 성과 개선에 적극적일수록, 세금 납부에 대한 성실성이 보다 높아지는 등 조세회피 성향이 크게 낮아진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각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앞서 ESG 합산 점수(ESG SUM)와 마찬가지로 전체 기업, 기업집단, 비재벌기업집단 기업 모두에서 기업 규모(Log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으며, 전체 기업과 비재벌기업집단 기업의 경우 배당 여부(DivDummy)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성숙단계에 있는 보다 큰 기업들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엄격한 회계 감사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보다 작은 조세회피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전체 표본, 그리고 재벌기업집단 소속 여부의 관점에서 각각 ESG 점수, 회계유효세율(GAAP

ETR)로 측정된 CSR 활동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살펴봤다. 특히 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부득이하게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CSR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문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재벌기업 집단 소속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CSR 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 모두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정도와 조세회피 성향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치적으로도 유사한 크기를 지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재벌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경영과의 관계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CSR 항목을 구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전체 기업과 비재벌기업집단 기업의 경우 사회(S) 항목이 높아질수록 특히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벌기업집단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G) 성과가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재벌기업집단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지배구조와 관련된 경영자의 의도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공헌점은 첫째, 한국 기업을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기업의 CSR 성과와 조세회피 정도를 비교하여 한국 기업의 CSR 성과와 조세회피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둘째, 재벌기업집단과 비재벌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세 회피 정도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변수별 성과에 따른 비재벌기업집단의 조세회피 정도를 측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회계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회계유효세율(GAAP ETR) 외로 현금유효세율(CASH ETR) 등 더욱 다양한 조세회피 대응치를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CSR 활동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 References

- 강정연 (2019), “조세회피와 기업투명성”, *세무와 회계저널*, 20(2), 95-123.
- 김수정, 박종훈, 김창수 (2012) “기업집단의 최고경영자 활용 및 퇴출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41(3), 483-510.
- 김정교, 김정호, 김경옥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57(2), 227-256.
- 김정호, 김정교 (2013),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예측변수로서 유효세율의 평가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22(1), 1-40.
- 김진욱, 변선영 (2009), “CSR 개념의 전개과정과 기업집단의 대응과정”, *경영교육연구*, 58(1), 171-197.
- 노현섭, 조용언, 김태수 (1999). “기업규모와 조세간의 관계를 이용한 정치적 영향이론과 정치적 비용이론의 비교”, *세무학연구*, 14(0), 29-66.
- 박준령, 김요환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8(6), 313-326.
- 유현수, 최규담, 김세로나 (2017), “기업의 이익투명성이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59(3), 165-212.
- 유상열 (2010),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회계저널*, 19(1), 107-139.
- 이균봉 (2010), “기업소유구조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34, 187-216.
- 장승욱, 김용현 (2013), “기업의 ESG와 재무성과”, *재무관리연구*, 36(4), 131-152.
- 장승주, 김용길, 이용규, 노희천 (2017),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4(2), 41-76.
- 전규안, 박성동, 이영한, 이동규 (2020, 6월2일),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심포지움, 서울, 대한민국.

- 조은영·윤두열 (2017),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K-IFRS 도입 전후 비교”, *조세연구*, 17(3), 281-306.
- Yoon Bohyun , Jeong Hwan Lee and Ryan Byun (2018), Does ESG Performance Enhance Firm Value? Evidence from Korea, *Sustainability*, 10(10), 1-18.
- Yoon Bohyun , Jeong Hwan Lee (201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Korean market: Implications of Chaebol affiliate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6(1), 21-31.
- McNeil Chris , Greg Niehaus, and Eric Powers (2004), “Management turnover in subsidiaries of conglomerates versus stand-alone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2(1) 63-96.
- Chun Keung Hoi, Qiang Wu, and Hao Zhang (2013), “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Evidence from Irresponsible CSR Activities”, *The Accounting Review*, 88(6), 2025-2059.
- Fariz Huseynov and Bonnie K. Klamm (2012), “Tax avoidance, tax manag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8, 804-827.
- Fry, L.W., G.D. Keim and R.E. Meiers,(1982), “Corporate contribution: Altruistic or for profit?” *Academic Management Journal*, 25, 92–106.
- Graham, J.R., and A.L. Tucker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563-594.
- Luke, Watson. (20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aggressiveness: An examination of unrecognized tax benefits*. (Working Paper), SSRN Electronic Journal. Available from 10.2139/ssrn.1760073.
- Partha Sengupta (1998), “Corporate Disclosure Quality and the Cost of Debt”, *The Accounting Review*, 73(4), 459-474.
- Scott D. Dyreng (2008), Michelle Hanlon and Edward L. Maydew,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61-82.
- Chen Shannon , Kathleen Schuchard, and Bridget Stomberg (2019), “Media Coverage of Corporate Taxes”, *The Accounting Review*, 94(5), 83-116.
- Sharon P. Katz, Urooj Khan, and Andrew Schmidt (2013), “Tax Avoidance and Future Profitability”, *Columbia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13(10).